

## 권두언

제가 어디 가서 인권을 연구한다고 소개를 하면, 조금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인기 분야를 연구하느라 힘들겠다는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날 인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권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이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 때만 해도 남들이 잘 하지 않은 희소 분야를 연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조약기구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수많은 규범들과 결정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각 국가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었고, 한국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각종 정책자료와 권고, 결정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에는 인권센터 등 각종 인권기구들이 설치되었고, 최근에는 ESG, DEI, 유럽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별 기업에도 인권 관련 정책과 기구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인권’ 현상들이 모두 학문적 연구 대상이고 자연스럽게 인권연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라는 인권 관련 학회가 두 개나 있는 것도 그 현실의 반영이겠죠. 지난 봄에 열린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그리고 이번 겨울에 열린 인권법학회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에는 각각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비인기’ 분야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연구자들이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권법학회와 인권학회의 초기 설립 때부터 관여해 왔고, 지금은 인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저변을 더 넓히고, 후속세대들도 더욱 적극 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 분야의 특성상 실무분야나 시민

사회와의 접촉면도 더욱 넓혀야 하겠고요. 지금까지 일궈온 것도 많지만, 앞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술지인 <인권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학회가 하는 여러 학술활동의 꽃은 누가 뭐래도 최신 학술논문이 실리는 학술지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번 호에도 귀한 연구들이 실렸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소수자 인권 맥락에서의 고찰>은 국제인권법에서 확립된 국가의 인권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가의 인권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존중, 보호, 실현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권의무의 의미를 그 역사적 맥락과 현재 시점에서 충실히 정리하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왜 외출하지 못하는가>는 서울 거주자의 저상버스·지하철 이용 경험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대충’ 보면, ‘이만 하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이한 시각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연구의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인권연구가 지향해야 할 그 지점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성인기 이행에 따른 인권운동 활동의 지속과 제약 요인>이라는 논문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21세기 인권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인권운동의 성장입니다. 청소년이 주체로 나선 청소년 인권운동 덕분에 우리는 청소년 인권을 시혜가 아닌 주체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인권운동가들은 나이를 먹고 성인 활동가가 됩니다. 청소년 인권운동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그 ‘이행’에 대해 주목하면서, 성인기 이행이 가져온 제약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래동화의 재해석>은 TV나 드라마에서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체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

다. 페미니즘은 오늘날 시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도구입니다. 페미니즘의 관점을 활용한 리메이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논문 덕분에 우리는 한국전래동화의 리메이크를 페미니즘의 관점이자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위>입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나왔지만,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멍니다. 이 논문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장애인 객실에 대한 장애인 우선예약 의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어떠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인권연구는 그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인권연구의 본령에 충실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도 이렇게 의미있는 논문들이 실렸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시각에서 더 다양한 인권분야를 다룬 논문들을 <인권연구>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술지를 챙겨보는 것만으로 한국의 인권연구 동향을 단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실상부한 인권 분야의 대표 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권연구>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님, 위원님들, 편집간사님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권법학회, 한국인권학회의 모든 회원 선생님들이 <인권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인권법학회장 홍 성 수

www.kci.go.kr